

[H 갤러리] JULY COLLECTION

7. 1. – 7. 31.

PHILIP. HAN.

Pierre Bonnard(1867 - 1947, 스페인)

7. 1.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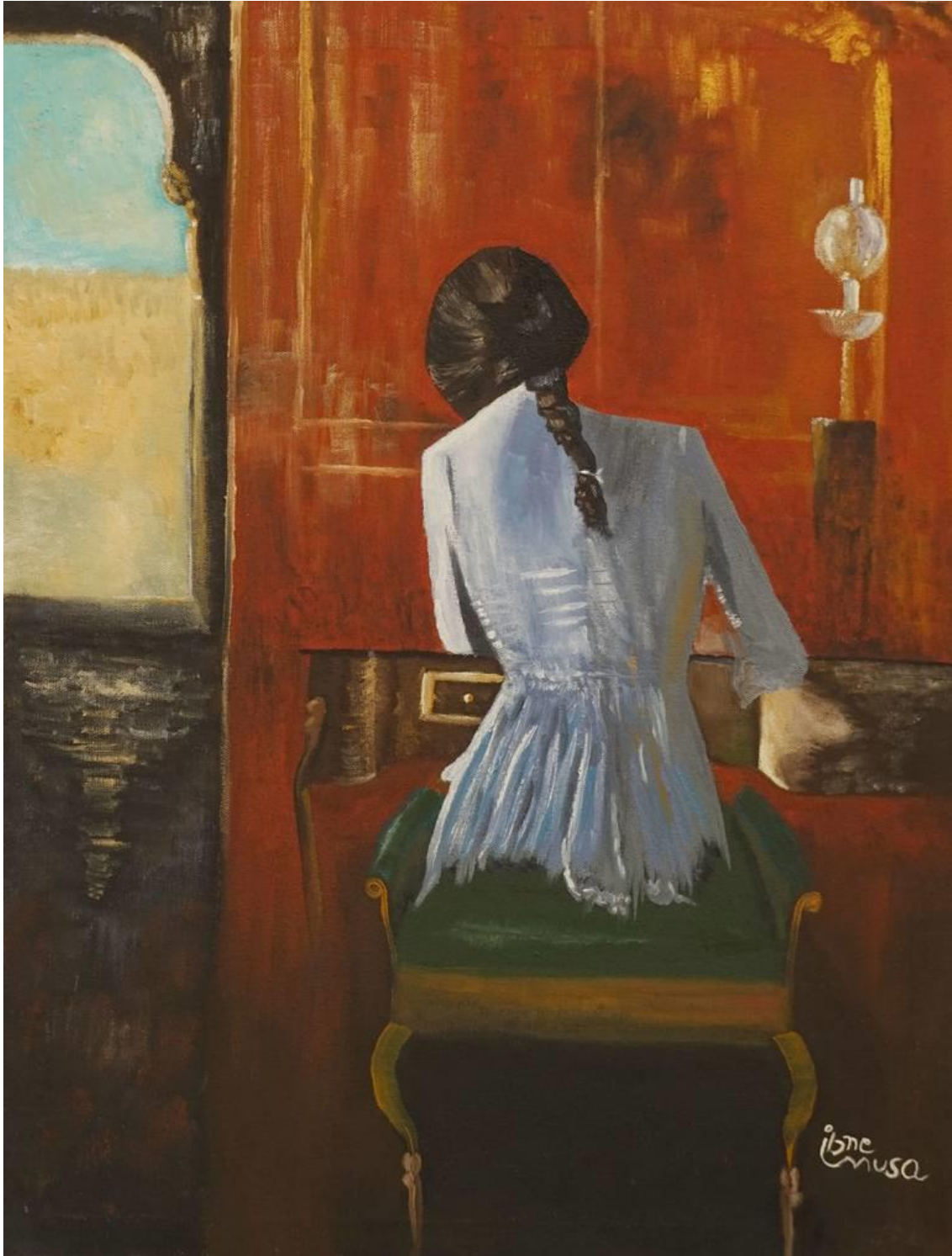


Young woman writing · Mujer joven escribiendo. 1908

뜨겁기도 했고, 바람이 살짝 불었을 때는 속을 뻘도 했다. 낮잠을 잔 듯도 한데 기억에는 없다. 내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리 없는데 저 젊은 여인의 속상함이 내 마음 같다. 어떤 사연이기에 종일 붉은 테이블 보 위에서 방황 중인지 어쩌면 그 답답함이 내 마음 같은 지 흰 눈 위를 맨발로 걸어야 하는 숙명을 짊어진 것 마냥 내내 글과 대치 중이다.

Waheed Ibne Musa(파키스탄)

7. 2. 금.



Writing You Again. 2019.

이 작품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 마치 눈을 감고 집은 물감을 닥치는 대로 페인팅한 듯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균형감을 상실한 모델,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책상과 붉은 벽면과 푸른 하늘과 황금 들판 아래 검은 바다 등등 그럴듯한 풍경을 떠 올릴 수도 없다.

심지어 눈곱만 한 조화로움 조차도 없다.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습성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작품은 두고두고 할 애깃거리가 많을 것 같다. 이런 내 컴플레인을 들은 것인지 Waheed Ibne Musa 는 이 작품 후기에서 '유화 물감과 붓을 처음 구입해서 그렸고, 돈이 없어 모델은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속사정이 그렇다 하니 더 할 말은 없었다. 이쯤에서 글쓰기를 마칠까 했다. 한데 이 작가는 마피아 얘기를 다룬 소설을 쓴 작가였다. 아마존 프로필에는 건설업을 그만두고 흙으로 작은 집을 지으며 사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소개 글을 읽었을 때, 무엇인가 꼬집고 싶은 데 그리하면 안 될 것 같은 중력이 작동하는 것 같았다.

독자 리뷰 몇 개를 읽던 중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언어의 흐름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리뷰 문장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이 작품 감상 한 줄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유화의 흐름이 호러물 같았다' 짚으로 말이다.

Pietro Antonio Rotari(1707 - 1762, 스페인)

7. 3. 토.



Young Girl Writing a Love Letter, 1755

Pietro Antonio Rotari(1707 - 1762, 스페인)는 초상화 화가였다. 특징은 여성이 작품 주제라는 점이다. 로타리가 남긴 여러 편 여성 초상화 작품을 감상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테면 초상화를 증명사진으로 친다면 로타리 초상화는 개성 있는 프로필 사진 또는 인스타그램 용쯤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 작품 Young Girl Writing a Love Letter(1755) 역시 그런 면이 돋보인다. 연애 편지를 쓰는 소녀라고는 하지만 소녀 표정은 지루한 숙제를 하다 때려치우고 로맨스 소설을 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지를 스스로 뽐내는 것 같았다. 게다가 소녀 기개가 참 좋다. 볼 테면 보라지쫘. 선생님이 이 소설을 읽으면 내 재능에 놀라 자빠질 걸 하는 듯 한 도도한 눈빛이 붉은 색감과 함께 강렬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작품 여러 정보를 훑다가 BIESES 즉, 스페인 여성 작가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이 단체가 19세기 스페인 여성 작가는 남성 작가의 성공을 부러워만 했다는 이전 주장을 반박하는 문서를 발견했고, 그 문서를 연구한 결과 초기 스페인 현대 여성 작가는 남성 작가와는 다르게 자신의 일과 문학을 알리는 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THE NEWBERY(1887년 설립, 무료 공공도서관으로 문화 관련 연구 지원)가 치하하는 포스팅을 하면서 로타리의 이 작품을 함께 실었다. BIESES 연구 결과를 속속들이 읽지 않아도 로타리 이 작품만으로 연구 성과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데 로타리는 자신의 작품이 작품 의도와는 다르게 쓰였다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답 대신 되레 내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 인스타그램 용 초상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사업을 한다면 대박 날 수 있을까?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어떨까? 답변을 드리면 저는 투자를 한다이다.

Henri Lebasque(1865 - 1937, 프랑스)

7. 4. 일.



woman-writing. 1928.

비 소식에 마음이 어수선했던지 평온한 분위기를 찾았다. Henri Lebasque(1865 - 1937, 프랑스) 작품이다. 간밤에 애먹은 글 문장이 번뜩 생각나 눈 비빌 틈도 없이 소파 끝에 걸터앉아 글을 쓴다.

미몽인 이런 상태가 분명 있다. 놀라운 것은 한 글자도 나아가지 않던 글이 밤새 셰익스피어가 강림한 것인지 기가 막히게 글을 쓴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국 작가도 이런 상태에서 퇴고를 하면 흔히 포텐 터진 글을 쓸 수 있다고도 했다.

르바스크도 아침 미몽의 맛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글 쓰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경험했을 그 에피소드를 이처럼 편안하고 바람까지 부드럽게 르바스크 특유의 평안함을 화폭에 담았다. 이 따듯하고 안온함은 르바스크가 추구한 작품 경향이라고도 한다.

Pierre Bonnard, Edouard Vuillard, Henri Matisse 와 교류하면서 얻은 색의 감정과 연출 등 모든 것을 자신만의 테마로 발전시키고 안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후기 작품은 야수파 흐름을 선호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작품 창밖 풍경을 종일 부러워할 것 같다.

James McBey(1883 - 1959, 스코틀랜드)

James McBey(1883 - 1959, 스코틀랜드)

James McBey(1883 - 1959, 스코틀랜드)

7. 12. 월.



Woman Writing at a Secretaire. 1932.

James McBey(1883 - 1959, 스코틀랜드)는 에칭을 독학으로 익혔고, 이 분야를 개척한 선도자라는 기록이 있다. 짐작컨대 금속 판화 일종인 듯싶다. 이런 맥베이 작품이 인기를 누린 시기는 제 1 차 세계 대전 지역,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당시였고, 1920 년 대 인기가 절정이었다고 한다(nationalgalleries.org).

한데 1929 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맥베이는 에칭화를 놓고 초상화를 그리며 가계를 꾸린 듯싶다. 해서 그런지 맥베이 작품은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 간 어떤 맥락을 찾기가 어려웠다. 맥베이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스스로 '어떤 예술적 운동과도 연관 짓지 않은 숙련된 장인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은 맥베이 작품 평을 짧게 남겼다.

개인적으로 에칭화를 포함한 맥베이 작품 절정은 1930 년 대 모로코에서 그린 작품들 아닐까 한다. 그가 모로코에 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맥베이는 모로코 연작에서 자신이 에칭화를 그린 작가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면서도 유화로도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긴 듯싶다.

특히 이 작품은 비서실에서 글을 쓰는 여성(1932)으로 보면 일하는 한 여성 모습을 사진 대신 그림으로 남긴 듯하지만, 1930 년 대 당시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글을 읽고 쓰는 여성은 신여성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작품 속 모델은 당시 모로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사료로도 볼 수 있었다.

The Master of the Female Half-lengths

7. 14. 수.



A Lady Writing at her Desk. CIRCA(대략) 1500-1530

제일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여러 물건이었다. 현재 감각으로는 그 쓰임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게다가 펜을 쥐 모델 오른손과 왼손에 쥐 물건 또한 무엇일까. 작품을 이해하고자 검색을 하던 차에 이 작품 작가를 The Master of the Female Half-lengths 라고만 본다. 대체 이는 또 무엇인가.

dejonckheere-gallery 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참고로 dejonckheere-gallery 는 15 세기 ~ 17 세기 플랑드르 회화 연구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이다. 이 갤러리에 따르면 The Master of the Female Half-lengths 는 이름이 알려진 적이 없다고 한다. 이를테면 무명 씨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의 반신 초상화를 즐겨 그렸으며 이러한 반신 여성의 형태학적 유형은 동시대 작가인 Adriaen Isenbrant 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데 검색 결과 중에 이 작품이 Adriaen Isenbrant 작품이라는 포스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을 연구한 dejonckheere-gallery, 판매하는 sotheby 모두가 The Master of the Female Half-lengths 작품이라고 소개하는 쪽에 신뢰감이 든다. 여튼간에 이 무명 씨 활약은 특별했는가 싶다.

타원형 얼굴, 아치형 눈썹, 잘 정리된 입술 게다가 섬세하고 잘 다듬어진 손은 여성의 반신 초상화에 가장 이상적인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을 wikipedia.org 는 북부 르네상스의 예술적, 도적적, 인본주의 가치를 잘 표현했다고 평한다.

요컨대 당시 반신 초상화 등으로 유명짜 한 Adriaen Isenbrant 와 Ambrosius Benson 두 화가 작품 맥락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무명 씨의 작품을 폄하하지 않고 되레 르네상스 회화 발전의 징검다리 삼아 연구하고 그 가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포용력을 발휘한 점이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을 대하는 태도의 한 면을 왜 인본주의적 감성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Artist Unknown

7. 16. 금.



mutualart.com.

19 세기 영국 한 아트스쿨 누군가의 작품이라고 한다. 어두운 배경 앞에 한 모델이 사랑이 넘치는 표정을 밝게 표현하고 있다. 연예 편지를 쓰려는 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작품이다. 풋풋하고 아련하고 수정 같기도 하다.

한 손가락을 입가에 저리 대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동네 오빠일까 아니다 도시에서 휴양 차 다니러 온 도시 런던 청년일 수도 있다. 무엇이 저 이의 눈망을 축축한 사슴 눈을 갖게 한 것일까. 혹시 이 그림을 그린 그 UNKNOWN 은 이 그림을 그리다 저 모델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달콤한 상상을 즐기고 흥분하는 찰나 반지를 뒤늦게 보았다.

설마 당시 유행했다던 기록용 초상화를 남기기 위한 인스타그램용 그림인 것일까. 그렇다 해도 저 여인 분명 사랑에 빠졌다. 설마 UNKNOWN 작가를 사랑한 것은 아닐까. 이름을 밝히면 안되는 관계여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 속사정조차도 UNKNOWN 인 이 작품, 사랑 빼면 남은 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라는 영화 대사 한 마디가 떠 오르는 작품이다.

Ajanta Cave Painting

7. 20. 화.



Lady Writing a Letter. Batik Painting on Cotton Cloth – Unframed

아잔타 · Ajanta 석굴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1세기 동안 지어진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석굴이다. 1819년 영국 출신 존 스미스 장교가 인도 마하슈트라 지역에서 호랑이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다.

석굴은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염불을 외우는 방을 비롯해 스님들의 주거 공간 등을 포함해 오늘날 절과 같은 용도의 굴이 총 29개에 달한다. 한데 놀라운 점은 자연 석굴이 아닌 말발굽 모양을 절벽에 찍고 그대로 돌을 깎아내면서 동굴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능히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손색이 없다.

이 아잔타 석굴과 관련한 글 중 알랭 베르디에(법보신문, 20190604) 기고 칼럼에는 16번 석굴(보기: <https://cavesofindia.org/ajanta-cave-16-sculpture/> 또는 <http://www.voyage361.com/2014/10/ajanta-cave15-18.html>)에 대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순다리 공주에게 그의 남편이 자신은 스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이 16번 석굴에 그려져 있다고 밝혔다.

우연히 발견한 이 그림은 인도 고유 문양인 바틱을 활용해 아잔타 석굴 그림에서 참조했다는 설명이 있다. 해서 든 생각이 그림 속 저 여인이 16번 석굴에서 볼 수 있다는 그 순다리 공주 아닐까 싶었다. 보채는 아이의 투정을 나몰라라 하며 펜을 들고 스님이 되기 위해 길을 떠난 남편에게 쓰는 저 편지에는 어떤 심정이 가득할까.

집 걱정은 말고 대업을 이루라는 글일까 원망과 그리움을 가득 담을까 아니면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한 복잡한 심경 탓에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이 하루를 보내고, 내일 다시 써야지 한 것일까. 천 년 전 일이라도 사람 사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연을 알고 감정 이입하면 것처럼 애타는 일이 또 있을까도 싶다.

Mizuno Toshikata(水野年方, 1866-1908, 일본)

7. 22. 목.



메이지와 쇼와 시대 사이. 41.6 x 30.2

Mizuno Toshikata(水野年方, 1866-1908, 일본)는 판화 가이다. 이 작품 역시 목판 인쇄물로 분류한다. 한데 작품 정보에 '사후 · Posthum'이라고 쓰여 있다.

짐작건대 색을 낸 것은 작가 사후라는 말 같았다.

미즈노 토시카타는 청일 전쟁 때 판화가로 유명세를 얻었고,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통해 그의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그 후 신문 삽화가로 활동했고, 지금 이 작품과 같은 여인 감성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일본 미술 작품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듯싶다. 여러 가지 연유, 개인적인 취향 등등이 작용한 것일까. 간혹 보이지 않는 손이 가는 길을 막고 돌아가라는 손짓을 하는 것도 같다. asia.si.edu/object/S2003.8.1488/ 에서는 이 작품을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다. 세밀 붓이 머금고 있는 잉크까지 말이다.

작품에 녹아 있는 세계관이 어떻고 당시 문화를 이런 지점에서 엿볼 수 있고, 사실적인 표현과 과장된 표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다 등의 큐레이션이 없어도 애끊는 심정이 오롯하다. 게다가 열풍이 종일 불어대는 이 여름날 어떤 말이 내 애절함을 담아줄까 싶을 때, 이 그림을 보면 내 심경과 다르지 않을 텐데 저 희고 차가움은 마치 그날 그 사람인 줄 알았다.

Pablo Picasso(1881~1973, 스페인)

7. 30. 금.



Woman writing, 1934.

Pablo Picasso(1881~1973, 스페인) 작품은 볼 때마다 경이롭다. 어떤 연유로 이 같은 큐비즘, 여러 각도에 본 시각을 한 평면에 이처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다.

피카소가 큐비즘에 이르기까지 그 속 사정을 속속들이는 몰라도 그의 여러 작품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공통 요소를 따라가면 그 출발점이 스페인 고대 유물 중 5 등신 상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평에 힘이 실린다.

이를 두고 전통적인 여인 상에 대한 가치를 거부하는 패기라는 말에도 역시 동의한다. 이런 피카소의 세계관은 세잔의 그림에서 면 분할에 대한 영감을 얻고 마침내 1907년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에서 큐비즘 시대를 열었다.

이후 피카소는 앞선 청색 시대(1901 - 1904) 화풍을 완전히 탈피했고, 큐비즘은 오늘날 초현실주의로 불리는 회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한 면을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얘기하는 관성이 팽배한 우리에게 피카소의 큐비즘은 일침을 가하는 면도 있다.

저마다 말에는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고, 시각에 따라 그 색은 다양하게 프리즘 될 수 있음을 글이 아닌 그림으로 웅변하는 듯싶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이런 의미를 아랑곳하지 않는 저 여인 표정에는 온전히 한 면만을 오롯이 담는 중 같다. 사랑의 열꽃이 온 얼굴에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는 것이 방금 전 내가 한 말이 무색할 정도니 말이다. 그럼 어떡냐, 사랑 참 좋다.

Epilog

6 월은 특별했다. 2020 년 출간한 전략경영과 문제해결 지침서 '해결에 집중하라' 책을 국내 H 그룹이 책임 급 역량 향상 과목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2021 년 남은 반년 동안 이 책을 밑알로 쓴다는 점이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게다가 #문제해결_스프린트 방식이 이번 과정을 통해 연락처에 성공한 점 또한 기쁘다.

이 말고도 '조국의 시간' 책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 매월 한 편 그림과 글을 쓰고 포스팅하는 H 갤러리 테마가 내게 있는데, 이번 컬렉션 제목을 '독서의 시간'으로 삼았고, 총 11 편 작품을 많은 분과 함께 감상했다.

널리 알려진 작가 작품보다는 주목받는 현대 작가 작품과 국내에는 무명이 가깝지만 자국 내에서는 존경 받는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했다. 그중 가장 인상에 남는 작가는 Gerard Sekoto(1913 - 1993, 남아프리카 공화국)와 Georges Valmier (1885 - 1937, 프랑스) 이다.

세코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로 인해 상처가 깊은 자국민에게 인간 존엄성을 부여하는 작품이라는 점이 좋았다. 발미에는 추상화에 대한 내 인식의 지평을 열어 주었다. 이외에도 컨템포러리 작가로, 사치 아트도 주목하고 있는 Nickie Zimov(1993 ~ ,러시아) 작품도 인상적이었다.

이런 내 모든 일이 척척착착 진행된 데에는 여러모로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월 한달 여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곧 맞이하는 여름 7 월 동안에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